

# 百濟의 火葬墓

— 새로운 百濟墓制 —

姜 仁 求

- 一、緒言
- 二、火葬墳墓의 構造
- 1、扶餘中井里당山遺跡
- 2、扶餘鹽倉里매죽遺跡
- 3、其他遺跡
- 三、藏骨容器
- 四、結語



圖 1. 火葬墳墓所在地位置圖 S=1 : 50,000

## 一、緒言

火葬墳墓는 佛敎와 더불어 印度에서부터 始作되어 中國을 거쳐 三國時代(百濟)에 들어와 流布된 一墓制이다. 百濟의 墓制는 同時代의 高句麗·新羅에 比하여 매우 多樣하여 土壙墓, 積石塚, 石室墳, 塼築墓, 甕棺墓等 여러 樣式이 그 遺蹟調査를 通하여 알려져 왔으나 여기에 紹介하는 火葬墳墓는 일찌기 알려진 事實이 없었다. 但只 8·15前 日人學者들에 依하여 骨壺等 火葬藏骨容器의 發見을 들어 火葬墳墓의 存在를 確定하여 왔을 뿐이었다. 三國時代에 있어서도 骨壺의 出土는 百濟故地 뿐이고 高句麗나 古新羅地域에서는 아직 發見報告된 일이 없으며 新羅에서는 統一以後의 것으로 보이는 骨壺가 慶州에서 多數 發見되고 있다.

佛敎가 百濟보다 先來한 高句麗地域에서 이처럼 藏骨容器가 하나도 發見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은 이 火葬墳墓制度가 中國에 들어와서는 北쪽보다 南쪽에서 盛行한 全的으로 南方의 人 所産으로 推測하게 하며 中國의 南朝와 일찍 交通한 百濟에서 먼저 輸入 流行한 것으로 생각된다. 百濟에서는 漢城時代의 것으로 보이는 藏骨容器가 漢江流域에서 發見된 事實 ①이 있어서 比較的 初期부터 火葬墳墓의 存在를 推定할 수 있다. 그리고 文獻上에 나타난 火葬에 關한 記錄은 統一新羅時代 初文武王 ② 때 처음 보이기 始作하여 以後 四個處에서 보이며 中國에서는 唐 高宗 時의 薄葬 ③에 關한 記錄이 있어 이 記事들이 印度式 火葬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 看做되어 오고 있다. 日本의 境遇는 續日本記에 依하면 七〇〇 A. D. 에 僧 道昭가 처음 火葬을 하였다는 記錄 ④이 있고 실제로 火葬墳墓의 遺蹟도 七〇八 A. D. 에 該當하는 것이 發見 報告되어 있다. ⑤ 日本에 있어서의 火葬墳墓制度는 百濟에서 처음 傳授하고 또 百濟人으로서 日本에 歸化한 사람들에 依하여 널리 流布된 것으로 認定되고 있다. 이러한 見解는 매우 妥當한 것이며 따라서 日本火葬墳墓의 源流型은 百濟에서 왔는 것이 當然한 것으로 생각되어 百濟地域에서의 그 遺蹟의 發見·報告가 期待되어 왔다.

筆者는 一九七一年 九月에 扶餘邑 中井里 當山에서 二·三의 各已다 른 構造樣式을 가진 火葬墳墓 四基를 調査하고 또 七二年 四月에 扶餘

邑 塩倉里 매峰에서 또 다른樣式的 火葬墳墓 一基를 調査하였다.

本稿에서는 이 두 곳의 遺蹟 調査報告를 主로 하고 火葬墳墓로 推測되는 것 一基와 火葬藏骨容器를 出土한 遺蹟을 參考로 報告하여 百濟火葬墳墓의 型式를 推察하고 따라서 百濟時代의 새로운 一般墓制로서 報告하는 바이며 參考로 扶餘博物館에 所藏된 藏骨容器(骨壺)들을 모아 보았다.

그러나 百濟火葬墳墓의 正모는 漢江流域과 公州地方에서 遺蹟이 나타나야 하며 더우기 百濟의 先型式으로 생각되는 中國南朝의 그것에 關한 資料를 全히 求할 수 없으므로 百濟火葬墳墓의 源型은 밝힐 수 없다. 이를 爲하여는 後日을 期約 하는 수 밖에 없다.

## 二、火葬墳墓의 構造

### 1 扶餘 中井里 당山遺跡

① 當山은 扶餘邑에서 南쪽으로 三km 떨어진 扶餘邑 中井里에 있으며 扶餘高等學校앞을 지나 錦城國民學校에 이르던 곧 當山麓이 된다. 이 當山은 海拔約 八〇—九〇m의 높이고 烏山의 西支脈으로 北쪽 一km 距離에 錦城山이 있고 南쪽으로 一.五km 距離에 錦江이 西에서 東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西쪽에는 들을 건너 七〇〇m 距離에 軍守里寺址와 宮南池가 있다. 當山은 前述한 바와 같이 烏山의 一支脈이나 連하는 脈이 낮아서 거의 野中圓峰과 같이 보인다. 墳墓가 發見된 곳은 當山의 山마루로서 그곳에 四〇—五〇餘坪의 平地가 形成되어 있고 잔디가 덮여져 있어 오랫동안 洞民들의 놀이터로서 利用되어 왔다 한다. 그리고 當山이란 이름은 前에 이곳에 國師堂이나 山神堂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因하여 생긴 이름으로 생각되며 數年前까지만 하여도 큰 古木이 있어서 堂나무로 불리워져 왔다 한다.

② 이 當山은 中井里 當里부락 一七九번지에 居住하는 尹尙德(四四歲)氏의 所有地로서 무척 植物採集하는 學生들이 이 山頂에 왔다가 밭이 콩콩 울러서 과본 結果 埤片이 나오고 이어 石劍이 發見되어 尹氏의 二男인 尹世烈(二二歲)君이 石劍을 가지고 扶餘博物館에 申告하여 왔다.

申告를 接하고 現地에 가 본즉 이미 七個所나 파헤쳐서 原形은 거의 없었다.

調査는 一九七一年 九月 六일부터 同月 一〇일까지 五日間 계속였으며 筆者와 扶餘博物館 學藝研究員 徐聲勳氏와 三名의 職員이 參加하였다.

③ 墳墓의 構造:…洞民들이 파낸 곳은 墳墓의 構造를 全히 알아 볼 수 없게 되었고 나머지 잔디가 아직 原形대로 덮여 있는 곳을 골라 트렌치를 넣은 結果 뜻밖에 墳墓의 原形을 알 수 있는 것이 二基、破壞된 것 一基、都舍 三基를 發見하게 되었다.

一 號墳(二重盃式)··表面의 잔디를 걷어낸 結果 三五cm 가량 腐土가 덮였고 그 아래서 扁平한 雜石이 나오고 雜石을 들어내자 岩盤이 나타나고 그 中에 直徑 三二cm의 圓形 穴이 있고 그 안에서 藏骨容器가 나타났.

이곳의 地層은 地表下 二〇—四五cm에는 全面이 老衰한 岩石層(이곳 住民들은 「石비레」라고 한)으로 덮였는데 墳墓는 이 岩石層을 直徑 三一cm 깊이 三〇—三四.五cm로 뚫고 底面은 南側이 四.五cm 더 깊으며 그 위를 二cm 두께로 腐土가 덮였고 그위에 큰 甬을 받듯이 놓고 다시 위에 약간 작은 甬을 올려 놓아 二個의 甬을 二重으로 安置하였고 盃周圍에는 腐土로 充填되었다. 蓋石은 두께 一〇cm 가로 二五cm 세로 三二cm의 大體로 方形인 雜石을 다듬지 않은 채로 덮었다. 蓋石 위는 三五cm 가량 腐土와 잔디가 덮였는데 이 腐土 中에서 無文埤片 二個가 흩어진 채로 發見되었다.

이 埤片들은 當初에 蓋石 위에 粘土를 덮고 그 위에 整然하게 깔았던 것이 後代 李朝白磁粉靑砂器破片들이 들어 갈 때 攪亂破壞된 것으로 推測된다. 李朝物件이 이 一號墳 위에서는 發見되지는 않았지만 三號墳 周圍와 一號墳에서 멀지 않은 他地點에서 發見되었다. 그리고 이 墳墓들이 所在한 곳의 地層은 最上에 잔디、다음에 腐土層 三〇—五〇cm 그 아래가 老衰한 岩石層이었으므로 一段 攪亂은 全地表가 同時에 行하여진 것으로 推測된다. 表土의 腐土는 黑褐色으로 잔디、풀 등으로 因

하여 좀더 腐蝕되었고 穴內에 充填된 腐土는 黃褐色으로 附近山頂에서 發見되지 않는 粘質이었다. 이것은 密閉하기 爲한 日地였거나 藏骨 容器를 固着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長久한 세월 穴內에 浸透한 水分과 苔等 別래에 依하여 腐蝕되어 粘質이 弱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粘質土를 使用하여 日地를 한다는지 固着시키는 것은 古代墳墓에 있어서 石과 石 사이에 흔히 쓰였던 일이며 實際로 日本의 備中國下 道墳墓에서도 같은 方法이 發見되었다. ⑥ 筆者는 이와같이 藏骨容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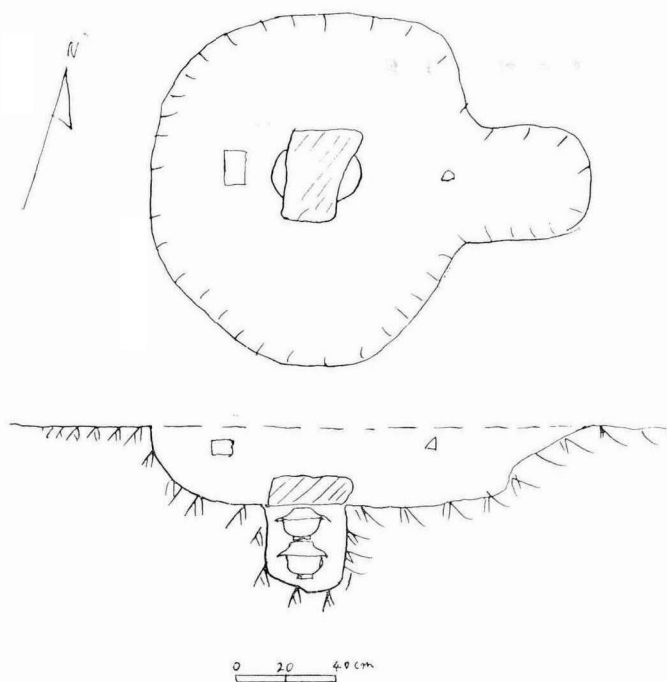


圖 2. 火葬墳墓 1號墳

二重으로 安置한 樣式을 「二重盤式」이라 부르기로 한다.

一號墳(心壺多盤式) 二號墳은 一號墳에서 正北으로 二·二m 떨어진 距離에서 發見되었다. 二號墳은 岩盤에 東西徑 四三cm、南北徑 五〇cm의 大體로 圓穴을 深二四cm로 뚫고 藏骨容器를 安置하였는데 配置方法、容器的 形態와 胎質도 一號墳에 比해 아주 相異하였다. 即 穴 中央에 高一九cm의 廣口長身の 平底壺를 놓고 周圍에 高七·六—九cm의 작은 蓋物 八個를 壺에 接해서 配置하였다. 中央壺의 蓋는 破損되어서 一部는 壺의 口緣部에 其外는 밑으로 떨어져 있었다. 壺와 蓋物 底面에서 岩盤 까지는 三六cm 떨어져 있고 一號墳과 마찬가지로 黑褐色 腐土로 充填되어 있었다. 그리고 壺와 蓋物들과의 底面 「레벨」은 大體로 同一平面을 維持하고 蓋物의 上面은 壺의 上面보다 一〇cm程度 下位였다. 이 二號의 穴은 一號墳의 穴보다 岩盤의 老衰가 甚하고 더 넓게 破壞되어서 穴壁 上端 一部가 缺失되었고 蓋石도 없어졌다. 藏骨容器들 周圍에는 亦是 黑褐色 腐土로 充填되었으며 土質과 用途는 一號墳의 그것과 同一한 것으로 생각된다. 岩盤은 地表에서 三六cm 下位였다. 地表의 腐土中에서 一號墳과 마찬가지로 無文埴片 약간이 檢出되었는데 蓋石 위에 깔았던 것이 後代에 破壞 攪亂되고 이때에 蓋石도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筆者는 이 墳墓와 같이 여러 盤을 周圍에 둘러 놓고 中央에 壺를 配置하여 墓의 中心을 壺에 致重한 樣式을 앞으로 「心壺多盤式」이라 부르기로 한다.

三號墳(單盤式) 三號墳은 完全히 破壞되어 전혀 原形을 찾을 수 없었으며 但只 腐土中에서 一號墳의 것과 같은 形態의 藏骨容器 一個가 發見되었다. 蓋는 完破되어 五個의 片으로 흩어져 있었다. 藏骨容器的 形態와 無文埴片들로 이루어 보아 一號墳과 同様の 構造로 盤一個만을 埋藏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周圍에서 一號墳에서 言及한 李朝白磁破片和 마로 常平通寶一葉이 發見되었으며 이곳의 地面은 一號와 二號墳의 地面보다 五〇cm程度 높아서 가장 甚한 破壞를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樣式上 「單盤式」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山에서 單盤式이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其他 地域에서 骨壺(盤) 一個만이 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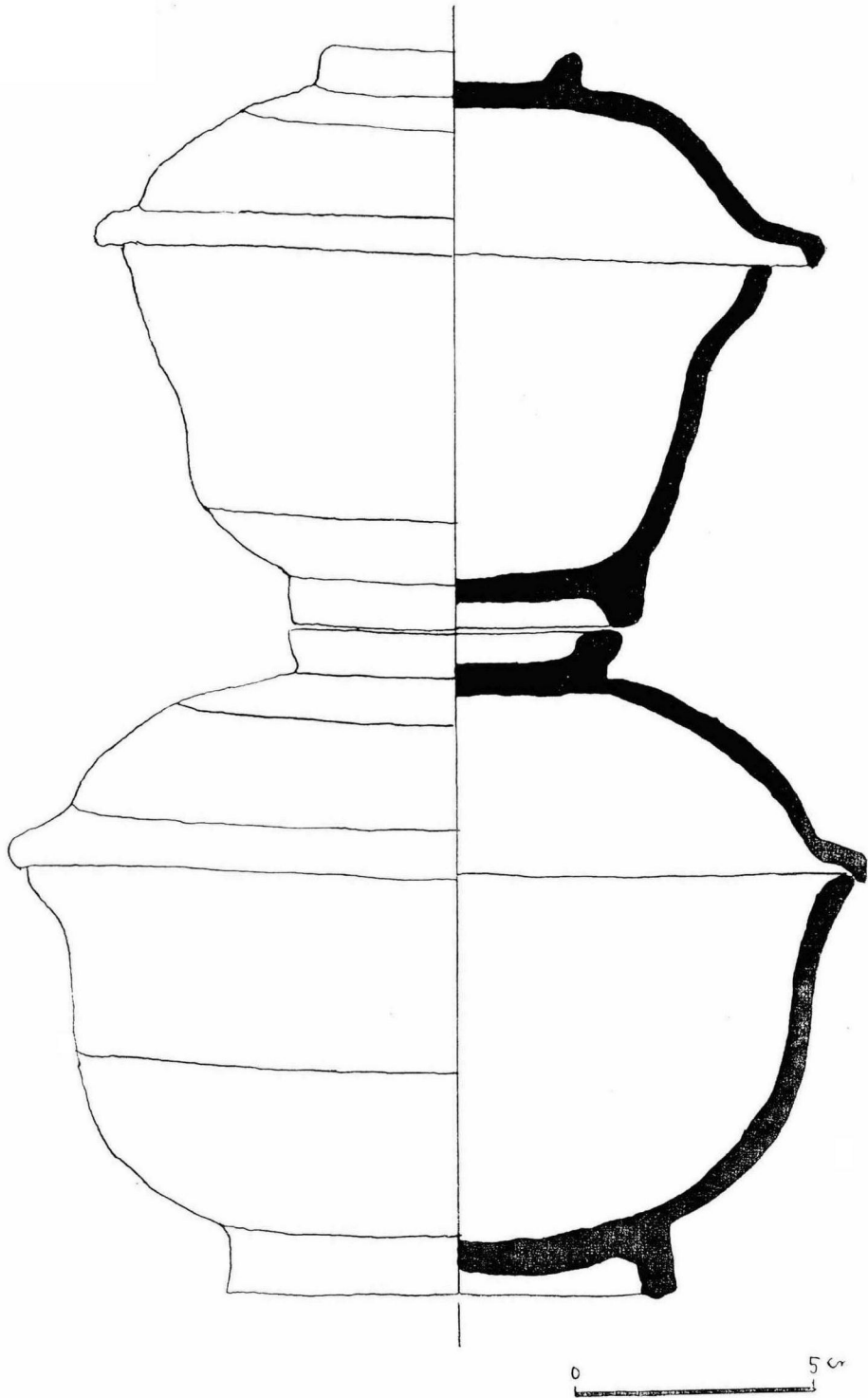


圖 3. 扶餘 中井里 당山 1號墳 甌

見되는 것은 모두 單盤式으로 實際로는 가장 數艾가 많을 것으로 생  
 각된다.  
 四號墳(單盤式) ... 이것은 七二年 二月初에 洞民들이 이 당山에 豫  
 備 斬壕를 파다가 發見한 것인데 發見者 閔昌(三二歲)氏에 依하  
 면 現地表下 一m 地點의 風化岩盤에 約 三〇cm 깊이의 堅穴을 파고 그  
 안에 藏骨容器 一個만을 安置하였다고 한다. 蓋石은 亦是 보이지 않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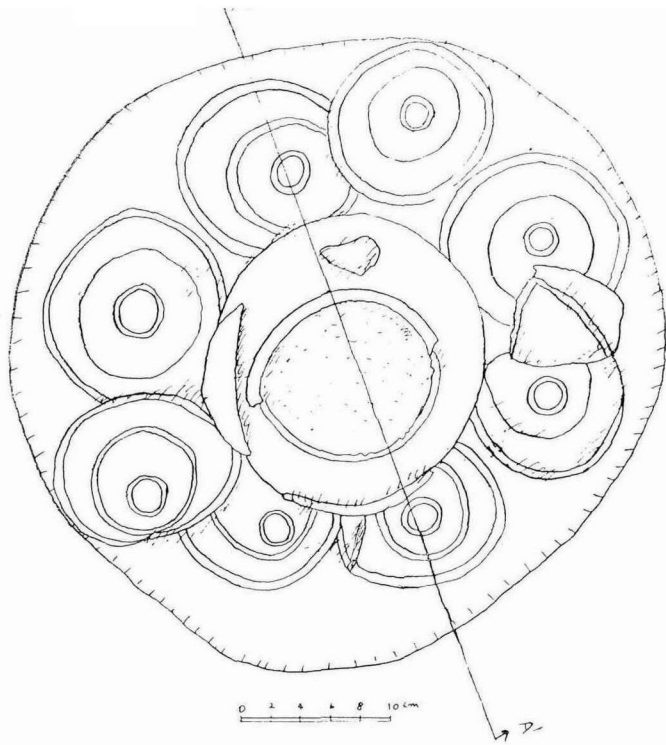


圖 4. 火葬墳墓 二號墳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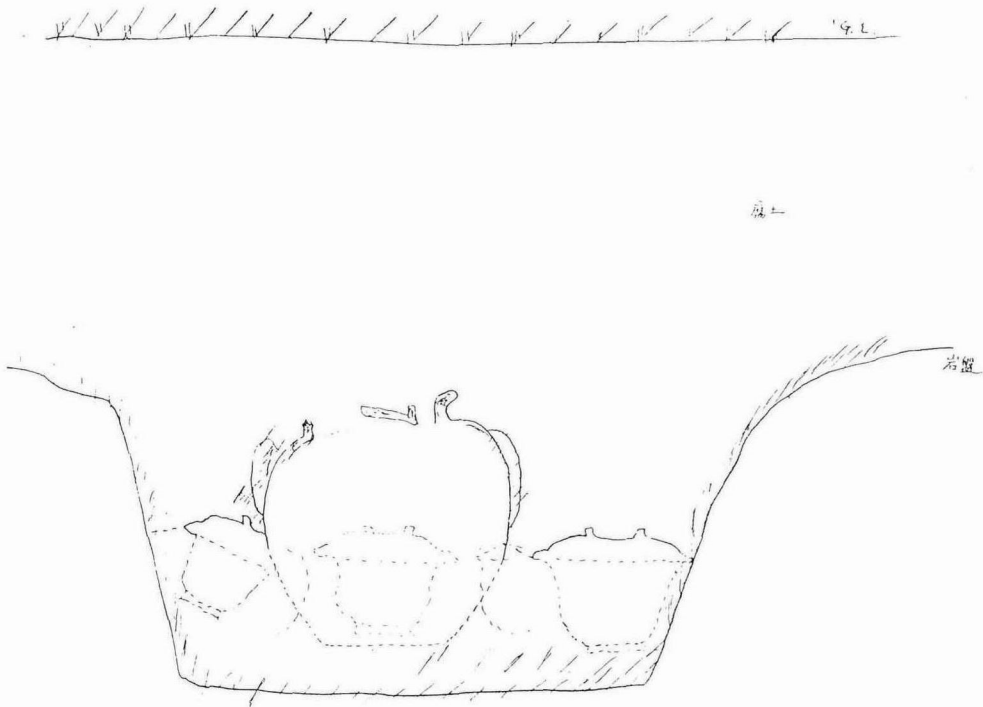


圖 5. 火葬墳墓 二號分 A A' 斷面圖

고 岩盤上面에 無文埴片이 數個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地表부터 岩盤까지는 山土와 礫石으로 덮여 있었다고 한다. 前記 一、二、三號墳들의 例에 비추어 岡氏の 말은 信憑性이 있는 것 같으며 造構는 大略 一號墳과 같고 三號墳의 경우와 같이 容器가 一個뿐이라는點 이 다르다.

其他 調査時에 發見한 것은 아니고 前記 尹君에 依하여 收拾된 一號墳 것과 同形態의 藏骨容器 一個가 있는데 尹君에 依하면 三號墳에서 東南間으로 一·五m 距離의 구덩이에서 發見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墳墓形蹟이 分明한 것이 四基이고 따로 容器만 發見된 것을 미루어 보아서 二基를 더 推算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이 외에도 洞民들에 依하여 採어진 七個의 구덩이와 南邊에 있었던 豫備軍塹壕等, 周圍에 百濟時代의 無文埴片이 多數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二、三基 더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故로 이 堂山頂은 火葬墳墓를 集中的으로 造營한 墓圃地로 생각되며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어느 寺刹 이나 마을 어느 家門에 속하였던 것으로 推測된다.

그리고 二號墳에서 西쪽으로 四·五m 距離에 頭大의 山雜石을 一段으로 놓은 長 二·八三m의 石列이 있었는데 바로 生土層 上面에서 發見되었다. 이 외에 百濟時代의 것으로 보이는 蓮花紋瓦當一個와 瓦質의 網錘一個, 百濟土器片數個가 表土層에서 發見되었다. 石列의 性格은 土留石(石列外部는 急傾斜를 이루고 있음)으로 쓰였거나 墓域을 保護하고 表示하는 垣牆 같은 施設로 推定이 된다.

### 2, 扶餘 鹽倉里 매峰遺蹟(內壺外甕式)

① 이 遺蹟은 一九七二年三月二〇日 發見되어 四月一〇日 博物館에 申告된 것인데 扶餘邑 鹽倉里 軍石部落 앞 매峰의 西쪽 傾斜面 중턱에 位置하였다. 매峰은 烏山(海拔 一六〇m)의 西南쪽으로 變은 支脈으로 海拔 一〇〇m 餘 쯤의 小山이며 遺蹟이 位置한 곳은 海拔約 六〇m 쯤 되는 四五度程度의 傾斜面이고 三月中旬에 내린 비로 因하여 構造物의 上部가 露出된 것을 住民들이 發掘하였다. 筆者는 申告 接受後 곧 現場 調査를 實施하였는데 容器는 이미 破損되었다.

② 構造는 表土下 三〇cm 地點에서 大略 橢圓形으로 穴을 파고 그 穴안에 甕等을 埋藏하였는데 穴은 南쪽이 약간 깊어서 七〇cm 東西가 六〇cm 깊이가 三五cm 였다. 그리하여 現在 가장 깊은 곳은 七五cm 가 된다. 바다는 生土層 위에 女瓦三枚를 얹어서 깔고 그 위에 甕을 얹어 놓았다. 甕은 質과 形態가 다른 半쪽을 서로 이어서 놓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質의 土器片들이 있었다. 얹어서 잇대 놓은 甕(마치 요지음의 「자배기」 같은)은 間接容器인 外甕으로 생각되며 그 안에서 發見된 土器片들이 內壺로서 藏骨한 直接容器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例는 扶餘地方에서 처음이나 後述하는 華城郡 三里 것과 恰似하고 또 日本의 備中國下道 墓域 中에서 一九四三年 發見 調査된 것중에도 高一尺五寸四分의 자배기를 埴위에 얹어 놓고 그 안에 骨灰를 넣은 例가 있다.

穴內는 黃色의 高운 粘土가 充填되었는데 密閉用 日地土로 보여진다. 女瓦三枚도 穴底面을 全部 깔은 듯하며 兩甕을 잇대어 놓으면 大略 徑 五〇cm 高二〇cm의 外壺가 되며 廢品 二個를 그대로 使用한 것이다. 內壺 크기는 알 수 없으나 軟質의 얇은 黃色土器이다. 內壺外甕式으로 부 르기로 한다.

### 3, 其他 遺蹟

以下에 紹介하는 二基의 遺蹟은 遺構가 確實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나 藏骨容器가 出土되고 構造上으로 一般 石室墳墓와는 相異한 形狀을 보이 며 또 日本 等地의 火葬墳墓의 例와 類似點이 있어서 이곳에 包含하여 火葬墳墓로 생각하여 본다.

① 華城日旺面三里遺蹟(倒甕式)…… 이 遺蹟은 一九五九年 九月에 發見되어 簡單한 調査⑦를 거친 것인데 地表下 一七cm 地點 단단한 地山에 長 一·二m, 幅 八〇cm, 深 四〇cm의 橢圓形 穴을 파고 그 가운데 百濟 土器 一一個를 安置한 것인데 그 配置 狀況은 알 수 없고 다만 其中가 장 큰 항아리(高五九cm 圓底) 一個를 穴中央에 얹어 놓고 周圍에 餘他의 土器들을 適當히 配置하여 놓았다.

여기서 얹어 놓은 항아리는 흔히 보는 貯水用 항아리로서 藏骨容器의 獨特한 形態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中央에 얹어 놓았다는 點 또한

단한 地山을 파서 底面을 단단하게 한 點等으로 이루어 보아 그것이 火葬墳墓의 一形態가 아닌가 推測된다. 이와 같이 容器를 얹어 놓은 것은 前述의 鹽倉里며峰遺蹟에서도 본 일이며, 日本의 下道墓域中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이 三里 것은 藏骨容器를 따로 만들어 使用하지 않고 既往에 쓰던 貯水用 항아리를 使用한 것이다. 倒甕式이라 부르기로 한다.

② 舒川屯德里遺蹟(共同墓室)

이 遺蹟은 忠南 舒川郡 舒川面 屯德里 一區 四八三番地에 所在하여(土地所有者 李奇英 一四歲) 七一年 九月頃 발굴이중 發見되어 七二年 一月 一〇日에 前記 李氏에 依하여 申告되었고 筆者는 그 翌日에 現地 調査하였다. 이곳은 舒川에서 北쪽으로 六km 들어가 海拔 二〇〇m의 野山들이 連하여 있는 곳으로 周邊 山에는 百濟時代의 古墳이 十數基있으나 只今은 모두 盜掘되고 殘骸만 더러 보일 뿐이다. 이번 調査된 地點은 野山의 傾斜面 중턱에 位置하였다.

遺蹟은 耕作者에 의하여 完全히 破壞되고 調査時에는 石材만 결에 모아져 있으며 土器 三個가 引出되었다 한다.

發見者의 말에 依하면 構造는 다음과 같다. 遺構는 長軸을 南北으로 하여 長이 約二·五m 短이 一·五m、地表下 三〇cm에 雜石(크기는 大略 三〇×四〇×五〇cm程度)을 一段만을 세워서 四壁을 만들고 內部에 骨壺三個가 配置되어 있었다. 其中 一個는 南쪽에 二個는 北쪽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石材는 아직 도 결에 모아져 있고 그 構造도 筆者가 確認한 바 實際와 別差 없는 것으로 보였다. 出土된 骨壺 一個는 完全하며 現在 扶餘博物館에 收藏되어 있고 다른 二個의 骨壺는 群山居住 某商人에 게 팔았다고 하는데 蓋는 發掘時 破損되어 돌틈에 放置된 것을 筆者가 收拾하였다.

이 遺蹟은 一見 石室古墳 같이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發見報告된 石室墳과는 여러 면에서 判異하니 첫째 石壁이 築한 것이 아니고 自然石을 平面을 利用하여 一점만 세우고, 둘째로 長이 五〇cm程度로 平面 넓이에 比하여 너무 낮으며 또 長短 兩壁의 長의 差가 적어서 平面이 거의 正方形에 가깝다. 普通 石室墳의 경우 長壁이 이 程度의 長이면

短壁의 長이 一m 未滿이어서 細長의 長方形이다. 그리고 蓋石이 없으며 이 경우 蓋石이 있었다면 長 二m의 巨大한 板石이 있을 것이다. 셋째 骨壺 三個만이 相互 一m 간격으로 出土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點等으로 이루어 보아 筆者는 이 遺蹟이 石室古墳이 아니고 火葬墳墓로 推定되며 土器 三個는 各己 主人公이 다른 骨壺로 생각되며 周圍 石壁은 家族關係 같은 單位墓域과 그 保護施設로 생각된다.

三、藏骨容器

1、扶餘 中井里 當山 出土容器

① 一號墳出土器... 蓋가 있는 鉢形의 罎이 겹쳐서 큰 罎이 아래에 놓이고 이 罎蓋의 鈕위에 다시 작은 罎이 올려져 있었다. 큰 罎의 色調는 完全한 灰色이고 작은 罎은 罎은 灰色에 약간 黑色이 있는 瓦色을 띄고 있다. 文樣은 전혀 없고 器身下部와 蓋의 上面에 各 一條의 線刻이 둘러 있다. 큰 罎은 一般的인 百濟土器처럼 硬度가 낮고 吸水性이 強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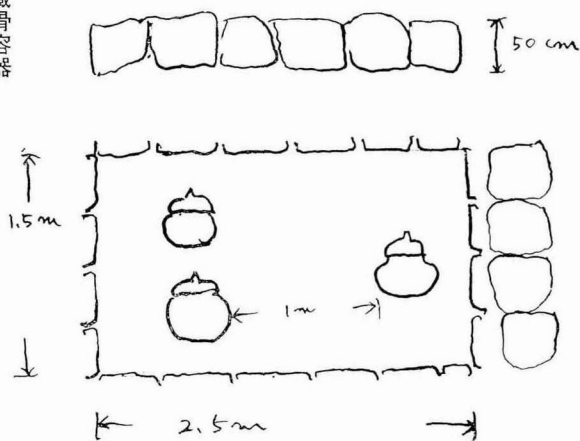


圖 6. 舒川 屯德里 遺構推定圖

고 작은 罈은 新羅土器처럼 단단하게 구워진 것이다. 두 罈 모두 大  
小의 差異는 있으나 形態는 꼭 같은데 口緣部는 약간 外反하고 굽  
은 높고 커서 安定感이 있으며 蓋는 肩이 넓고 알개 퍼져서 罈을 完全  
히 덮을 수 있도록 덮개가 내리워져 있고 鈕도 크게 되어서 蓋를 덮어  
놓으면 마치 접시의 굽 같이 되었다. 小罈의 器壁에는 二三個의 黑心  
이 있다. 이런 容器的 形態는 新羅 骨壺에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  
으나 新羅 것보다는 器身이 높은 使이고 이에 비해 蓋는 낮게 되어 있  
다. 또 日本 奈良時代の 火葬墳墓中 山城長刀坂出土 容器⑧에 이와  
주 相似한 形이 있다.

큰 罈 全高一四·八 cm 口徑一七 cm 굽徑九·三 cm 蓋高五·二 cm 蓋徑  
一七·五 cm 蓋鈕徑七 cm  
작은 罈 全高一二 cm 口徑一三·五 cm 굽徑七·二 cm 蓋高四·三 cm 蓋  
徑一五·二 cm 蓋鈕徑五 cm

② 二號墳出土 壺……前述한 바와 같이 中央에 壺가 있고 그 周圍에 작  
은 罈 八個가 놓여져 있었는데 壺는 短頸에 口緣部는 外反했고 器  
腹이 갑자기 커졌다가 차츰 줄어 들어서 腹徑이 器高와 거의 같  
고 平底를 이루었다. 胎土에는 모래가 약간 섞이고 거의 白色에  
가까운 灰色의 瓦質이고 器表에는 黑色을 칠한 듯하다. 이러한 器形  
은 百濟土器에서 그리 많지 않은 것이고 日帝 때 扶餘의 陵山里 等地  
에서 發見된 것 五個가 있으나 이들중 二個만이 平底이고 三個는 圓底  
에 가깝거나 完全한 圓底이다. 또한 新羅土器에서는 좀처럼 發見할  
수 없고 오히려 李朝의 白磁나 現代의 砂器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器  
形이나 全體의 均衡이 完全할 뿐만 아니라 表面處理에 있어서도 아  
주 빼어난 土器이다.

高一九 cm 口徑二二·八 cm 腹徑一八·二 cm 底徑九·六 cm  
이 壺의 蓋는 完全히 破損되어 壺의 上部와 周圍에서 發見되었으며  
質과 色은 壺와 같은 瓦質의 黑色이나 本來 壺의 蓋가 아니고 一號墳出  
土의 罈과 같은 것을 갖다 덮은 것으로 생각된다.

高一〇·六 cm 口徑一六·六 cm

周圍의 작은 罈들은 一號墳出土의 罈과 같은 形으로, 보다 작게 만들  
어진 것이며 質과 色 등도 같으나 其中 一個는 異形이어서 口緣部도 直  
立하고 굽이 없는 平底가 있으며 器壁도 두꺼운 瓦質이 一個 섞여 있다.  
色에 있어서도 黑色을 強하게 칠하였다. 蓋는 다른 것과 同一한 것을  
덮었다.

全高는 八個가 모두 다르나 八 cm 內外이다.

用途는 中央壺에 納骨을 하고 周圍의 小罈은 副葬品으로 넣은 것인 지  
그렇지 않으면 壺와 罈에 適當히 分骨하여 골고루 納骨한 것인지 器內  
出土物이 없어서 斷定할 수는 없으나 日帝時 扶餘 陵山里 古墳地帶에서  
發見된 合蓋壺棺으로 쓰여진 것들이 多數 發見된 일이 있는 것으로 보  
아 周圍의 小罈들은 副葬品으로 使用하였을 可能性이 크다. ⑩ 또 壺는  
軟質이고 吸水性이 強하기 때문에 貯水나 藏穀에 適合치 않고 特別히  
이러한 火葬墳墓에만 쓰기 爲해 만들어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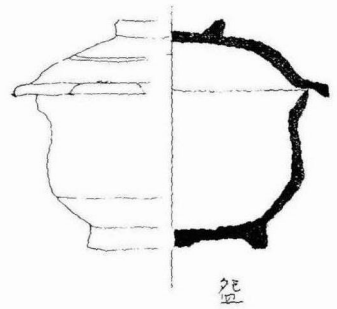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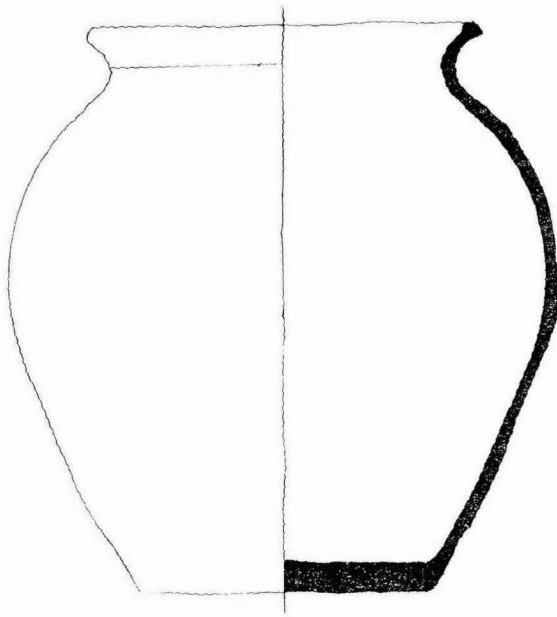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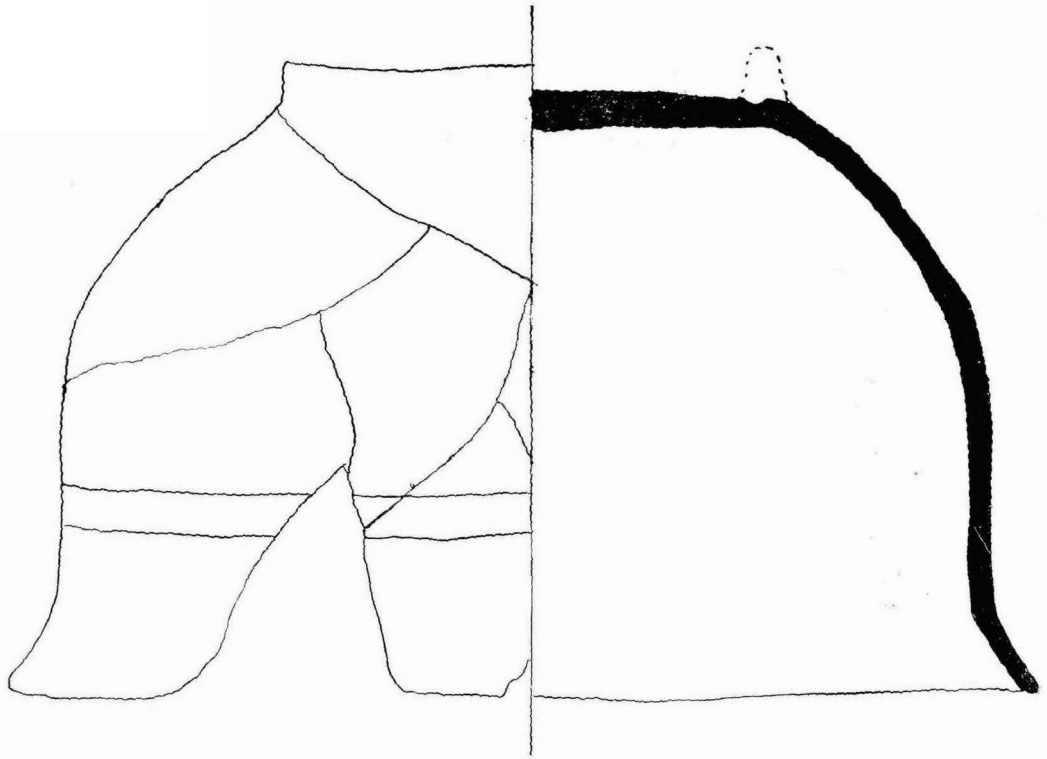
③ 三號墳出土 罈……墳의 構造를 알 수 없도록 完全히 破壞된 채로 容器一  
個만이 發見 되었는데 罈의 形은 一號墳이나 二號墳에서 出土된 罈形  
과는 크게 다르다. 即 口緣部는 斜立이고 그 線은 굽까지 延長되어  
굽만 없다면 截頭圓錐形을 倒置한 것 같으며 굽도 接地面을 밖으로 벌  
려 붙였다. 器色은 黑色에 가깝고 器壁도 두터워서 대단히 厚직하게  
보인다. 그리 輾轆를 使用하지 않고 손으로 빚어서 말아 올려서 만든  
것이다. 蓋亦是 瓦質이나 表面의 黑色이 벗겨져서 灰白色을 띠고 있  
고 胎土에는 약간 굽은 모래가 섞여 있다. 罈에 비해 가벼운 線을 이루  
고 鈕만 있다면 新羅骨壺中 罈에 가까운 形態이다.

全高一四·三 cm 口徑一五·六 cm 蓋高五·八 cm 徑一八·一 cm

④ 四號墳出土 罈……住民들에 依하여 收拾된 것인데 蓋는 없고 罈뿐이  
다. 口緣部는 약간 外反하고 器身에 製作時 卷上의 痕蹟과 굽을 만들어  
붙인 痕蹟이 뚜렷하고 食器形態로 扶餘地方에서 多數 發見되는 瓦質土  
로서 胎土는 黃色이고 表面에는 處處에 黑色이 남아 있다.

器高 八·四 cm 口徑 一七·五 cm

⑤ 5號墳出土 罈……이것은 調査後 同地域에서 豫備軍塹壕를 파다가 發



0 5 cm

圖 7. 扶餘 中井里 塚山 2 號墳 中央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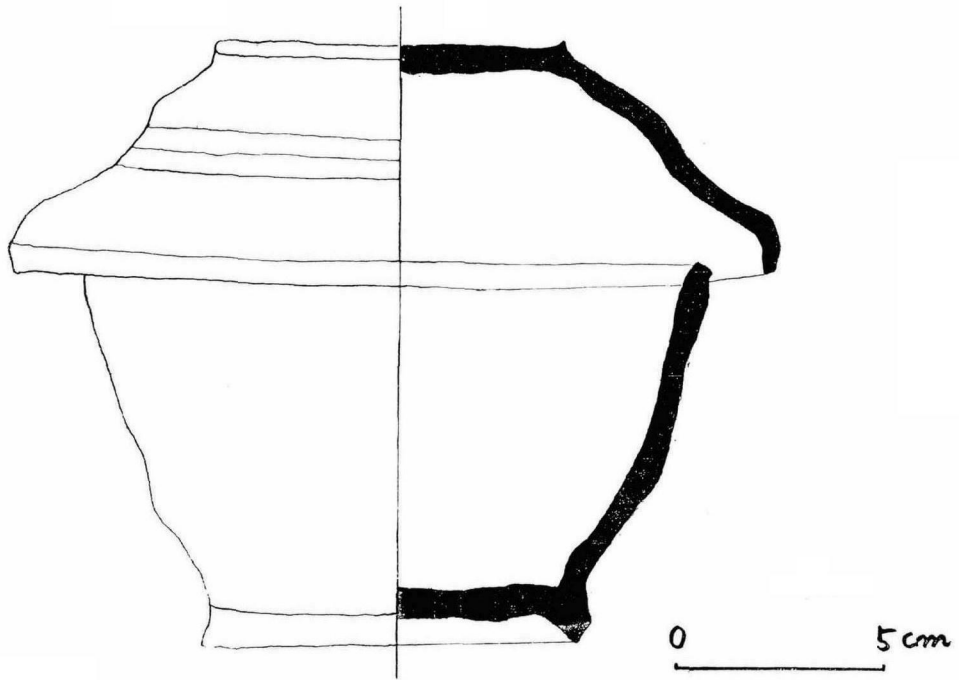


圖 8. 扶餘 中井里 당山 3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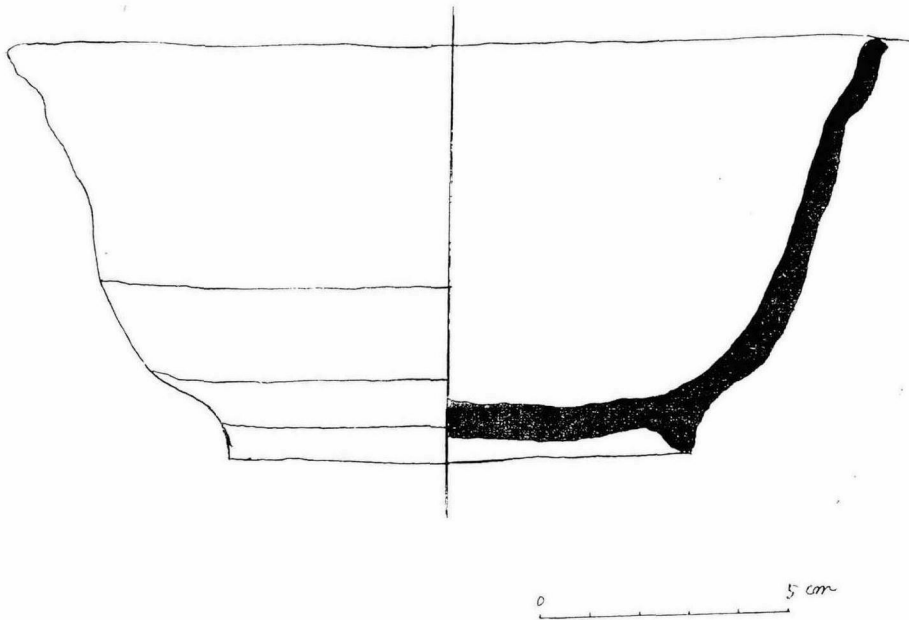


圖 9. 扶餘 中井里 당山 4號墳

見된 것인데 便宜上 五號墳으로 命名하였다. 이 地域에서 發見된 藏骨 容器中 가장 完美形이나 아깝게도 蓋와 甕의 口緣部一部分이 破損되었다. 器形은 一號墳出土 大甕과 같으나 얇고 輕快하게 생겨 마치 金屬製品과 같이 보인다. 瓦質이나 甕은 灰白色, 蓋는 灰色이다.

全高 一三七 cm 口徑 一六·cm 蓋高 五·一 cm 徑 一七 cm

⑥其他遺物……無文塼…이 塼들은 藏骨容器를 安置하고 堅穴위에 蓋石을 덮고 그 위에 塼을 깔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인데 現在 完全한 것은 하나도 없고 半切 또는 그 이상 破損된 片들이며 이와 같은 種類의 無文 塼들은 軍守里寺址에서 多數 發見되었다. 幅 一六·五 cm 内外 厚 四·五 cm 内外 長은 破損되어 一定치 않다.

瓦當…이 瓦當은 二號墳 周圍에서 發見되었는데 亦是軍守里寺址에서 多數 發見되는 것으로 中房은 낮고 그 앞에 五類의 蓮子를 넣었고 瓣間에는 間線이 가늘게 들어가 있고 線端은 약간 突起되어 三角形狀을 이루었다. 蓮瓣은 약간 隆起하였으나 거의 扁平하게 表現되었다. 周緣은 破損되어 알 수 없다.

瓣區直徑 八·三 cm 中房直徑 三·二 cm

網錘…瓦質이며 直徑 六·八 cm 厚 一·七 cm 中央에 直徑 一 cm의 孔이 있다.

## 2、扶餘塩倉里매峰出土 甕

外壺…前述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二個의 半쪽짜리 甕을 합하여 一個의 完全한 壺形을 만들고 그것을 얻어서 使用하였다. 其中 큰 것은 灰色硬 質土器로 器壁도 두터워서 一 cm나 되고 現代의 「자매기」처럼 廣口에 平底이다. 口緣部는 약간 外反하였으나 그 程度가 작아서 하나의 突帶처럼 보인다. 口徑이 四八 cm이고 底徑이 二八·五 cm인데 比하여 高가 二〇 cm 밖에 안되어 마치 굽이 없는 碗形이다. 表面에는 浸線文이 二條 橫走하고 그 사이에는 자리文이 보인다.

또 外壺中 작은 半쪽은 口緣部가 甚하게 外反하고 灰色의 軟質土器이다. 器壁도 〇·五 cm 밖에 안된다. 表面에는 아무런 文樣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平底이다. 口徑은 四〇 cm 程度로서 같은 外壺로 使用한 것 중 큰 半쪽보다 조금씩 작은 것 같다.

內壺…內壺로 보여지는 土器는 完全히 破損되어 確實한 器形은 알 수 없으나 남아 있는 片으로 보아 口緣部가 直立한 平底의 廣口壺로 보여진다. 色質은 黃色의 軟質이고 두께도 〇·五 cm이다. 器腹에는 比較的 幅이 넓은 一條의 線이 낮게 陰刻되어 돌린 것 같다. 其外 表面은 無文이다. 破片의 數量으로 보아 無蓋인 듯하다.

底面用瓦…三個分으로 보여진 女瓦들은 底面に 있어서 잘았으며 穴의 底面에 맞추어서 서로 약간씩 겹쳐서 잘았다. 三個 모두 軟質이나 色은 各 各 달라 黑灰色 一個, 黃色 一個, 灰色 一個 等이며 크기는 大略 長 四 cm 幅 三六 cm 厚 一·五 cm이다. 其中 二個에 刻印이 길이 새겨져 있으나 判讀할 수 없도록 磨滅되었다.

## 3、華城日旺面三地出土 壺

이 곳에서는 百濟土器가 모두 一三個 發見되었는데 中央의 大壺만이 納骨容器인 듯 하고 其他는 副葬品으로 생각되고 百濟土器로 多數 發見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壺만을 紹介한다. 이 壺는 흔히 보는 百濟土器壺로서 球形身에 口緣部가 外反하고 短頸이 달린 圓底이다. 質은 단단하고 色은 黑灰色이고 肩部 以下에 자리文이 있다. ① 火葬納骨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日常生活에서 쓰던 貯水用壺를 그대로 埋藏한 듯하다.

高 五九 cm

## 4、舒川郡屯德里出土 壺

이 곳에서는 土器가 모두 三點 出土되었으나 扶餘博物館에는 完形土器 一個와 蓋破片 二個分이 收藏되었다. 完形土器는 完全한 骨壺形態를 하고 있는데 壺는 廣口에 短頸 直立이고 肩을 橫張하여 腹徑이 器高보다 크며 圓底形으로 接地面을 약간 扁平하게 되어 直立에 支障이 없다. 腹에는 四條의 線을 돌리고 下部에 자리文이 있다. 蓋는 半球形이고 緣에는 突帶가 돌려지고 短은 垂直이다. 頂上에는 나무토막 같이 칼이나 대

로 짝아 붙인 鈕가 우뚝하게 솟아 있고 蓋肩部에는 徑 〇·五 cm 程度の 圓孔이 나 있는데 鈕를 中心으로 한 正三角形의 角位置에 있고 鈎靨이 兩번에 퍼져서 靨은 痕蹟이 있어서 興味롭다. 色은 蓋와 壺의 腹까지는 自然釉가 약간 덮이고 黃色이 나며 腹部以下는 百濟土器特有的의 灰色을 띠었다. 質은 대단히 단단하게 되어서 一見 新羅土器 같으나 腹部 以下の 灰色과 차리文으로서 百濟土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器形은 扶餘 中井里 新垈里 雙北里에서 各各 一個씩 發見된 일이 있고 新羅 地域에서는 發見되지 않는 百濟의 骨壺形態이다. 그리고 蓋鈕의 形態는 百濟地域에서도 發見되지 않는 것이며 간혹 伽倻土器中 有蓋杯에서 볼 수가 있다.

全高一七 cm 壺高一二 cm 口徑一·四 cm 腹徑一九·五 cm 蓋高八·五 cm 鈕高二 cm

蓋(一)은 위의 骨壺의 蓋와 形態、質、色調에 있어서 恰似하나 鈕의 上面이 前出의 壺에서는 오뚝하게 솟는데 比해 여기서는 扁平하게 되어 있고 肩部에 點文과 斜格文을 돌렸다.

高六·八 cm 徑一五·七 cm 鈕高一·六 cm

蓋(二)는 灰青色이고 단단하며 無文이다. 鈕는 前出의 二個보다 낮아지고 上面이 약간 울퉁하게 들어가 단추形이 되고 蓋가 납작하게 되어 鈕形과 함께 伽倻地方에서 多出하는 有蓋杯의 그것과 恰似하여 百濟土器와 伽倻土器와의 交流關係의 一端을 보여 주는 一資料이다.

이 蓋에도 三個의 圓孔이 있으나 骨壺의 境遇와는 달리 鈕의 直近에 位置하고 있다.

### 5、扶餘地方發見 壺

① 扶餘中井里發見壺……이것은 高一六 cm 口徑九·八 cm 底徑九 cm 인데 肩部가 옆으로 감자기 퍼지고 平底이며 靑灰色을 띤 胴部에는 가느다란 一條의 刻線이 돌리고 底部가 가까이 粉靑이 不整히 남아 있고 上腹部에는 自然釉가 약간씩 붙어 있다. 蓋는 比較的 扁平하고 鈕는 寶珠形이다.

② 扶餘新垈里發見壺……器身高一四·七 cm 口徑八·九 cm 底徑九 cm 靑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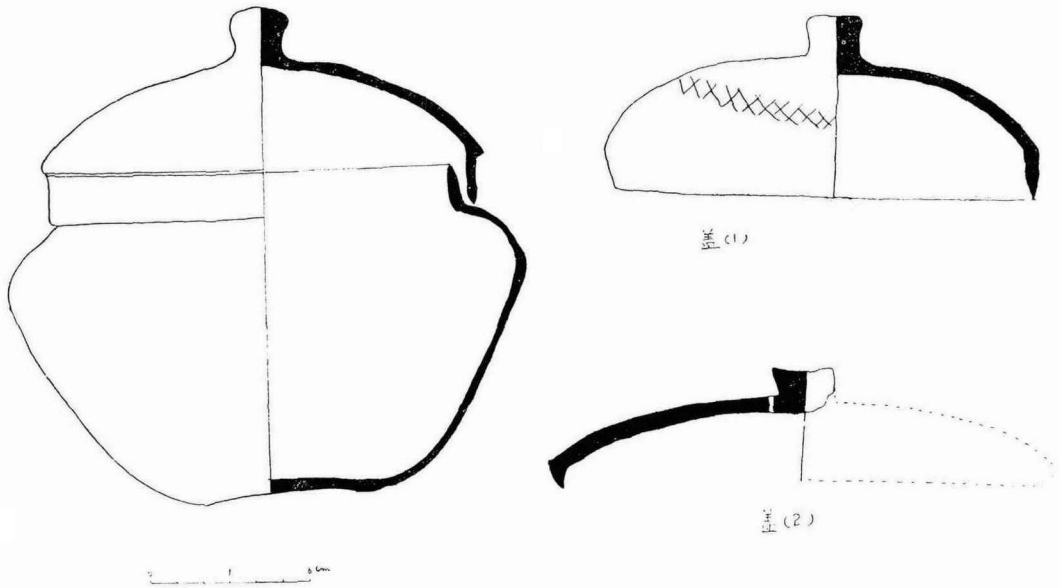


圖 10. 舒川 屯德里 出土 骨壺

色の堅緻한 燒成度를 보이며 肩部는 橫張하고 平底이다。表面에는 製作時 轆轤의 痕蹟이 뚜렷이 남아 있고 蓋는 中井里 發見보다 더 扁平하며 窄窄한 新羅高杯의 鈕같은 一鈕가 붙어 있고 緣周에는 가는 二條 刻線이 둘러 있다。一九三六年 八月에 新岱里의 丘陵에서 發見 되었는데 當時 內部에는 赤土가 가득차 있었다고 한다。

③ 扶餘附近發見壺……이 骨壺는 器身高一四·二cm 口徑八·七cm 底徑八·六cm이다。口徑部는 直立이나 좁아지고 平底이다。中腹部에는 刻線이 둘러 있다。蓋는 半球形이고 緣端이 水平으로 날카롭게 外出하고 頂上에는 큰직한 寶珠形 鈕가 붙어 있다。外見上으로는 別다르게 보이지 않으나 壺의 口와 蓋徑의 差가 심한 것으로 보아 製 뚜껑이 아닌 것 같다。一九三九年 四月에 發見되었으나 正確한 出土地點은 未詳이다。

④ 扶餘王浦里出土壺……器身高一〇·二cm 口徑一八·八cm 底徑一三·六cm의 碗形이고 비교적 높은 굽이 있으며 蓋를 덮으면 球形이 된다。靑灰色를 띄고 있으며 굽의 안에는 完全히 燒成되지 않아서 생긴 赤褐色이 보이고 轆轤의 거친 痕蹟이 남아 있다。蓋는 亦是 半球形이고 頂上에 寶珠形 鈕가 붙어 있다。

⑤ 扶餘雙北里出土壺……이 骨壺는 一九三九年 一二月에 出土된 것인데 器身高一五cm、口徑九·八cm、底徑九·八cm 肩部가 橫張하고 平底이다。靑色の 堅緻하게 구워졌으며 表面에는 幅約二·五cm의 間격으로 細線이 둘러 있고 蓋는 접시를 엮은 것같이 扁平하고 頂上에 寶珠形의 鈕가 붙었다。上面에는 黑心現象이 甚하여 表裏로 氣孔이 不특不특 나와 있고 이로 因하여 器盤이 우그러졌다。出土時 器內에서 粘土와 함께 約 一一個의 五銖錢이 發見되었는데 이와 같은 例는 日本의 火葬墳墓에서 發見된 일들이 있다。⑫

⑥ 舒川文山面出土 壺……이 三個의 碗들은 一九七〇年冬節에 出土되어 扶餘博物館에 收藏된 것인데 出土 遺蹟이나 狀況은 未詳이다。其中 大碗은 黃色の 軟質土器로 器壁이 아주 얇아서 磁器의 釉藥바르기前 狀態와 相似하다。器身의 口緣部는 外反하고 굽이 높고 無文이다。製作時의 轆轤痕이 微顯되었다。蓋는 肩部까지 平扁하게 퍼지고 一條의 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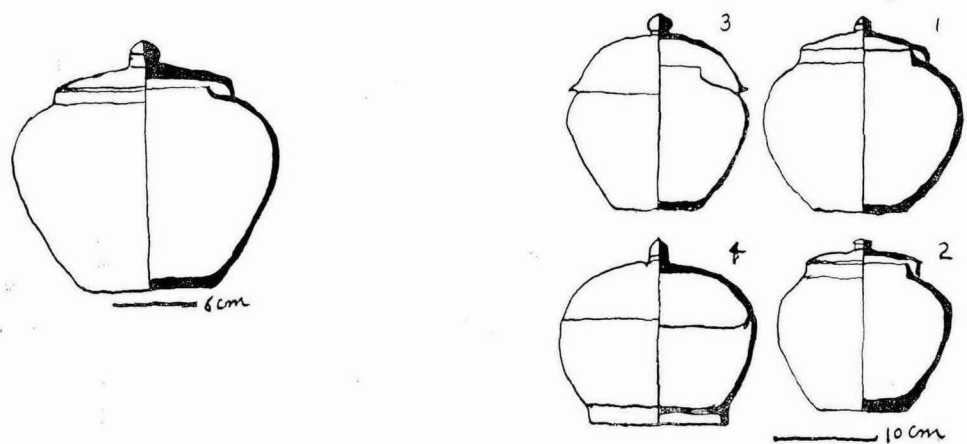


圖 11. 扶餘 雙北里 出土 壺

圖 12. 1 扶餘 中井里 出土  
2 " 新倉里 "  
3 " 邑 "  
4 " 王浦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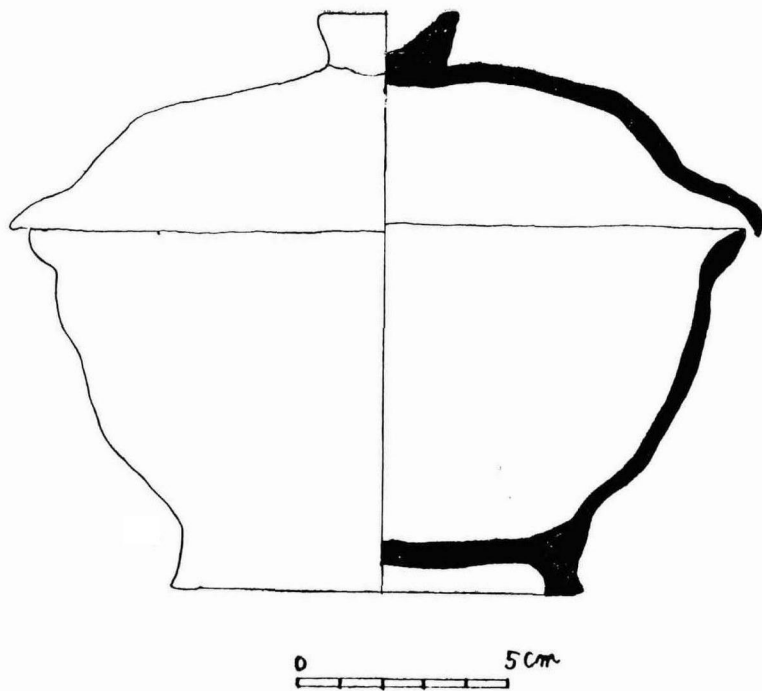


圖 13. 舒川 文山面 出土 碗

線이 둘러졌다。中央 頂上部에는 新羅土器의 高杯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中央部가 움푹 패였고 높은 편이다。  
全高一四 cm 器身高九 cm 口徑一六·七 cm、底徑九·三 cm、蓋高五·二 cm、徑一八 cm  
小碗二個는 扶餘 中井里 二號墳에서 出土한 小碗들과 形態、質、色에 있어서 同一하다。

이곳의 大碗과 小碗 모두가 中井里의 그것들과 매우 相似하여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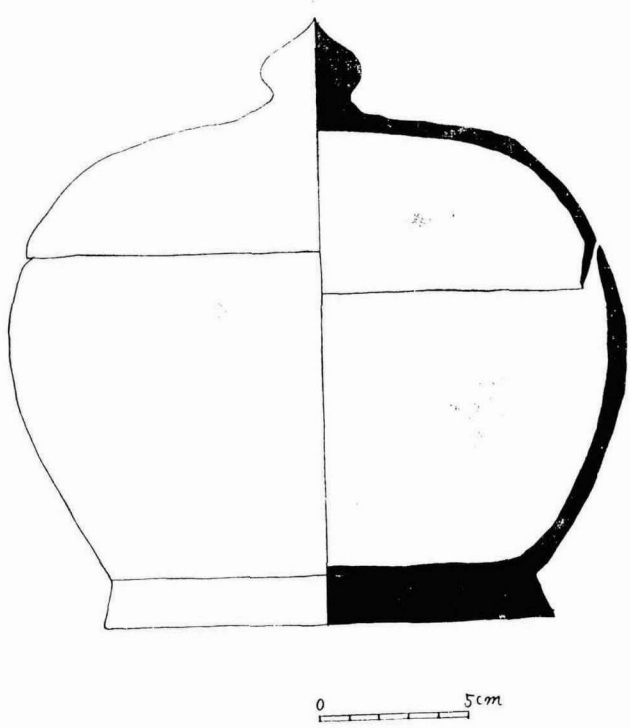


圖 14. 扶餘 草村面 新岩里 出土 壺

出土한 遺蹟의 構造도 中井里의 一、二、三號들과 大略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⑦ 扶餘草村面新石里出土壺……이 骨壺는 一九六五年 五月 一九日에 扶餘博物館에 收藏된 것인데 蓋付한 貌樣은 球形이며 器身만은 鉢形을 갖 추고 廣口의 口緣部는 약간 內傾하였으며 낮은 굽이 붙어 있다。胎土는 매우 精選되었고 灰色이며 堅緻하다。內外表面 모두 無文이나 轆轤痕이 보기 좋게 表現되어 있어 細線을 띤 것같이 보인다。器壁은 얇아서 銅器感을 준다。蓋는 半球形이고 蓋받이가 緣의 안으로 들어가 器身에 蓋合하는 경우 口緣部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頂上部에는 寶珠形의 鈕가 붙어 있다。이 骨壺는 全體의인 均衡이 맞고 表面處理가 잘 되어 胎土는 그 色調와 함께 骨壺뿐 아니라 百濟土器에 있어서도 보

기 드문佳品에屬한다.

全高一〇・五cm、身高一二・二cm、口徑二〇・六cm、底徑一五cm、蓋高九・五cm、蓋반이徑一八・七cm

⑧扶餘軍守里出土壺……이骨壺는一九五八年四月軍守里寺址附近에서出土되었는데出土狀況은알수없다.壺는球形身이며短頸의口徑은좁은편이며平底이다.肩部和底部에자리文이있는外에다른文樣은없고軋轆痕이나있고灰色의堅緻이다.蓋는面의흔적이直線的이고鈕도圓鈕形을倒置한것같고蓋나壺에比하여矮少하다.이러한鈕形은百濟土器에서도그리흔하지않다.그리고火葬墳墓의藏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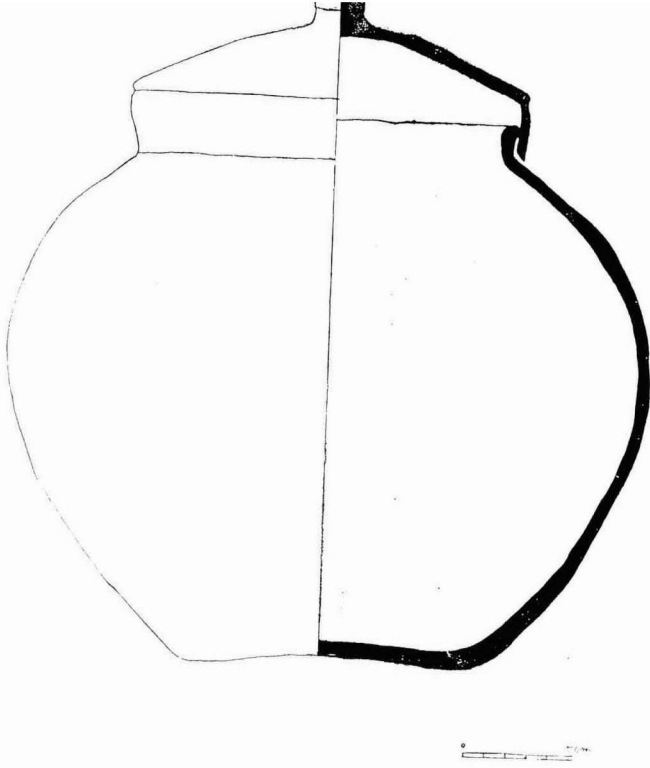


圖 15. 扶餘 軍守里 出土 壺

容器로서는最大形에속한다.

全高三三cm、身高二五・三cm、口徑一四・七cm  
腹徑三一cm、底徑一三cm、蓋高八・五cm

#### 四、結 語

以上에서言及한것과같이扶餘地方에서發見된火葬墳墓는埋藏樣式(構造)과그藏骨容器的形態에따라單壺式、二重壺式、心壺多壺式、內壺外壺式等の五種으로區分되고外에確實한調査를거치지않았지만火葬墳墓로推定되는것에倒甕式과單壺를使用하였으나一個의石籬內에數個의藏骨容器가集中되어있는共同墓室等이있다.

이들火葬墳墓의地理的位置는大概山の南側傾斜面の中間地點과당山頂의경우와같이山頂에造營하는경우가있으나이位置選定은統一新羅期の많은浮屠나舍利塔의位置와도서로通하고있는것같다.

그리고이火葬墳墓는前述한바와같이佛敎式埋葬方式으로서佛敎의傳來와함께流入되어처음에는僧侶들의專用墓制였다가佛敎가좀더普及되어一般化하는扶餘時代에와서는僧侶들의專用을떠나一般庶民의墓制로發展한것같다.그理由로서는現在當時의主墓制로다루고있는塼築墳·石室墳等은規模가莊大하여많은費用과勞力を動員할수있는支配層權力層이아니면當時庶民의經濟狀態로서는不可能한일일것이다.그리고이들塼築墳·石室墳의現存數字가長久한歲月破壞消滅된것을勘案하여도極히少數에지나지않아서도저희一般墓制(主墓制)로는생각할수없기 때문이다.또當時代의庶民墓制로併用되었던것으로壺棺墓라는簡單한것이發見되고있는데이에關하여는다로發表할機會를마련하겠다.

또한火葬墳墓는百濟의墓制뿐이아니라三國時代에있어서도一新羅의그것에關하여는차차 밝혀지겠지만一한墓制로서다루어져야할것이며적어도高麗時代에내려오기까지浮屠나舍利塔의地下埋藏施設과함께聯關지어究明되어야할것이다.

- ① 藤澤一夫：「百濟土器 陶器」世界陶磁全集一三 P.一九七
- ② 「三國史記」新羅本紀第七
- ③ 「唐書」二〇九 列傳第三四卷 王瓊傳 參照
- ④ 藤澤一夫：「火葬墳墓の 流布」考古學講座六、雄山閣 一九七〇年。
- ⑤ 梅原末治：「備中國小田郡に 於ける 下道氏の 墳墓」考古學誌誌 七一五號、P.一五
- ⑥ 角田文衛：「備中國下道氏 瑩域に 於ける一火葬墓」P.一、考古學雜誌 三 四一四號 P.一
- ⑦ 尹武炳：「京畿道 華城郡 日旺面出土の百濟土器」考古美術 一一二號 一九六〇年
- ⑧ 佛教考古學講座一（墳墓、經塚編）P.九七。一九七一年三月 雄山閣
- ⑨ 藤澤一夫：「前掲「百濟土器陶器」 P.一九九
- ⑩ 石田茂作：「扶餘軍守里廢寺の研究」飛鳥時代院址の 研究、一九四四年 一月東京
- ⑪ 尹武炳：「前掲文
- ⑫ 齋藤忠：「扶餘發見の 壺の 一型式」考古學雜誌 三三二一號 P.三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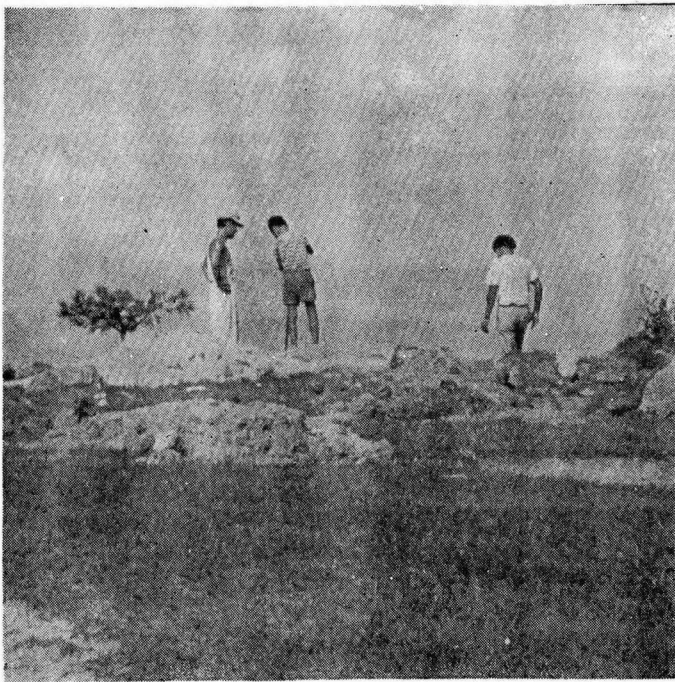


圖 16. 扶餘中 井里 塲山頂の 調査前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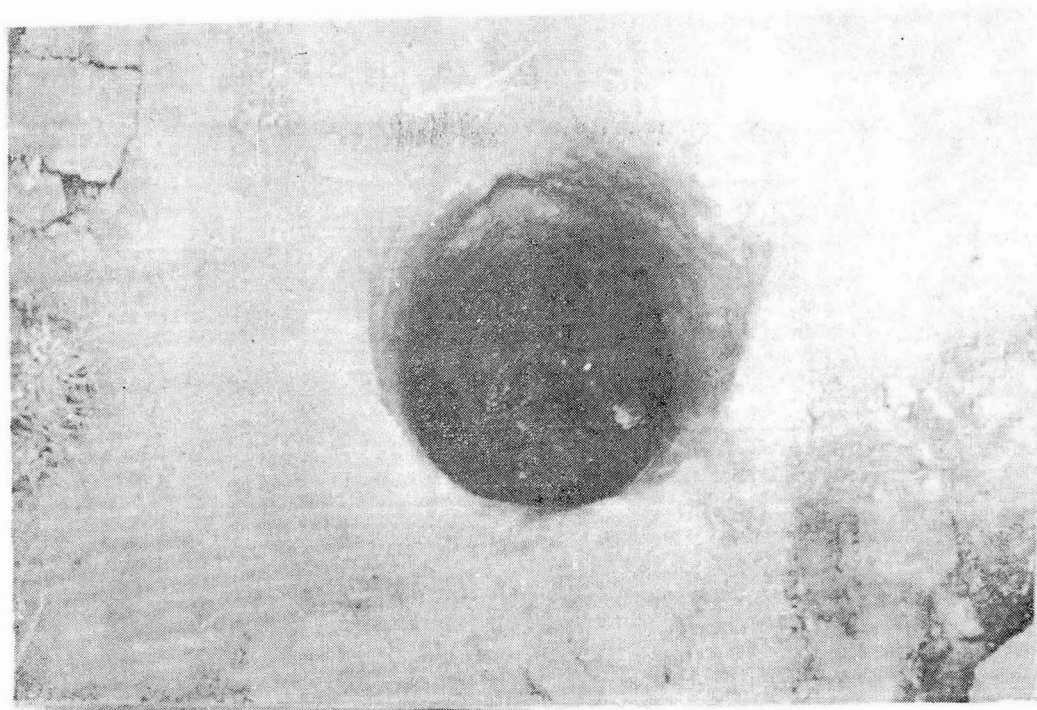


圖 17. 中井里 당山 1號墳 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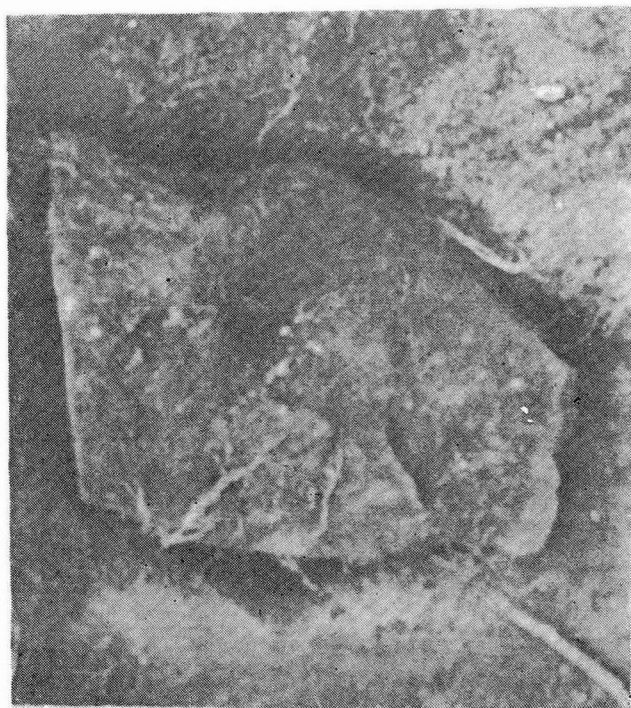


圖 18. 中井里 당山 1號墳 蓋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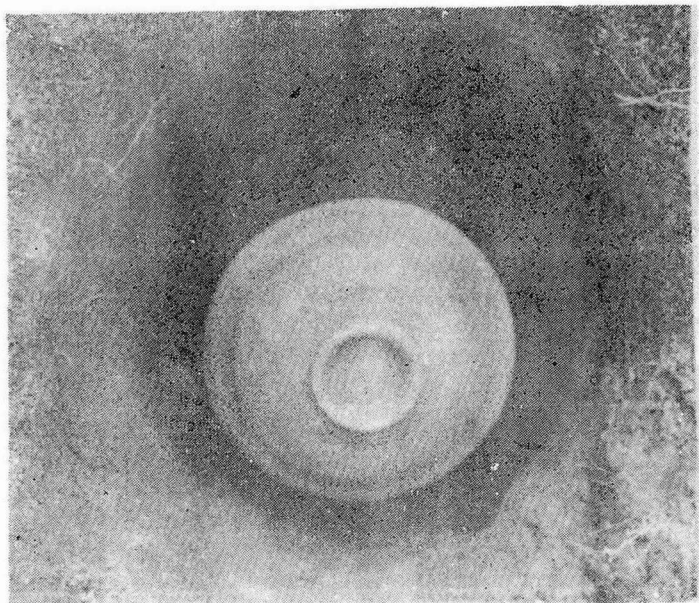


圖 19. 中井里 1 號墳 甕出土狀況



圖 20. 中井里 塚山 1 號墳大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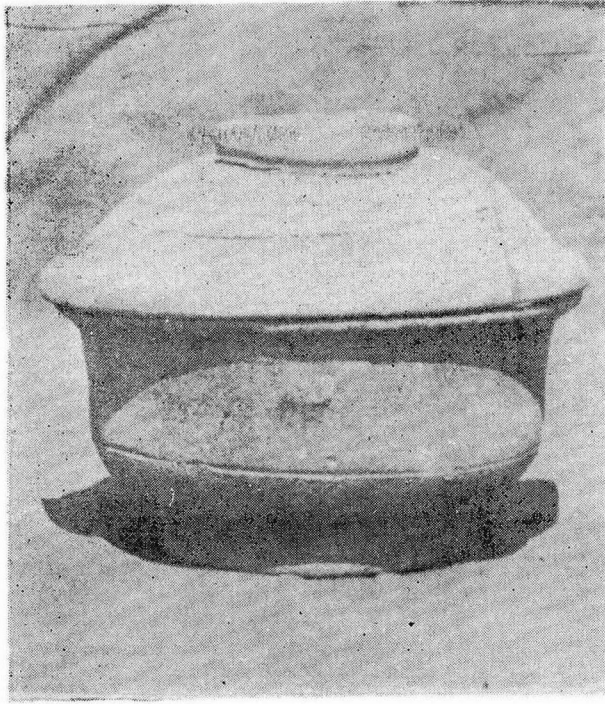


圖 21. 中井里 塋山 1 號墳 小鉢



圖 22. 中井里 塋山 2 號墳 壺出土 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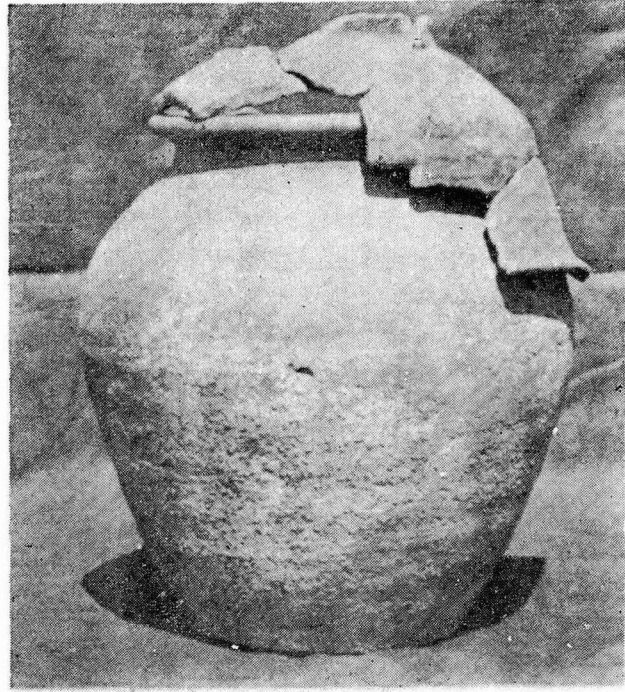


圖 23. 中井里 당山 2號墳 壺 및 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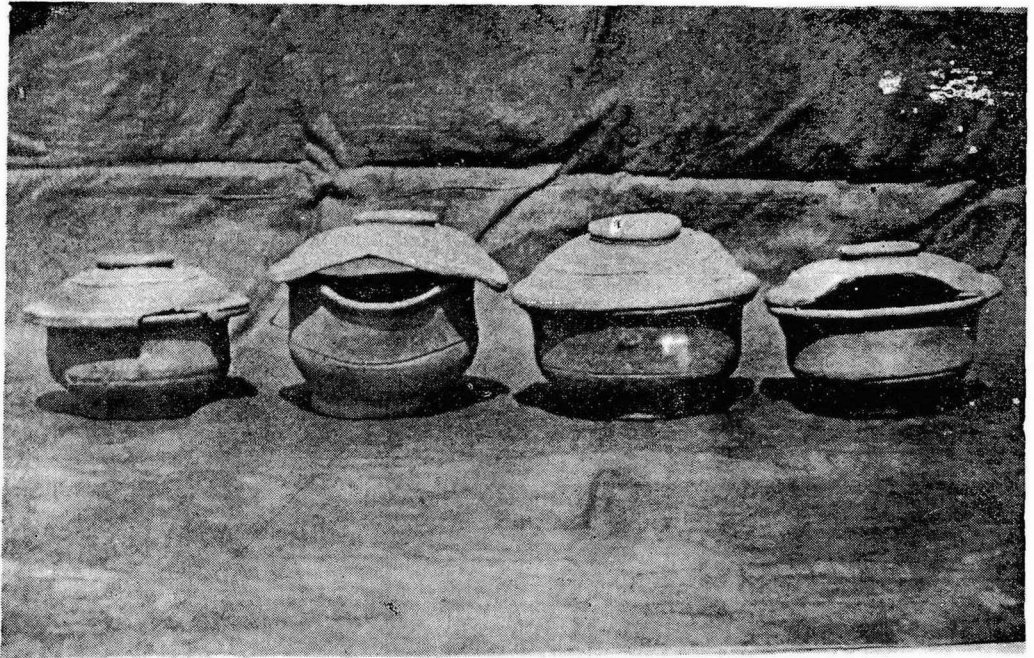


圖 24. 中井里 당山 2號墳出土器



圖 25. 中井里 塋山 2 號墳 出土罍



圖 26. 中井里 塋山 3 號墳 罍出土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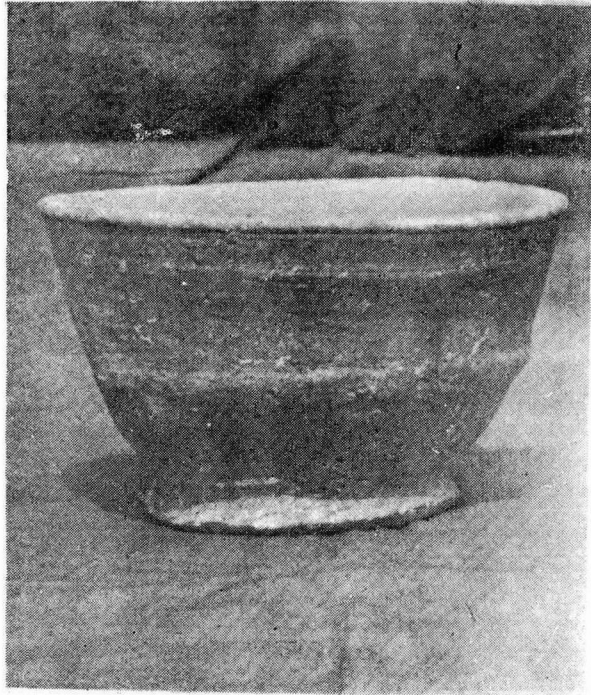


圖 27. 中井里 당山 3號墳 出土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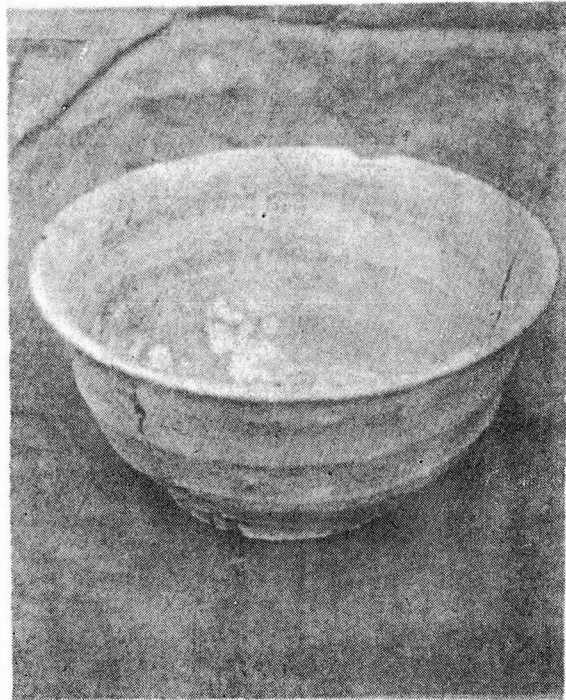


圖 28. 中井里 당山 4號墳 出土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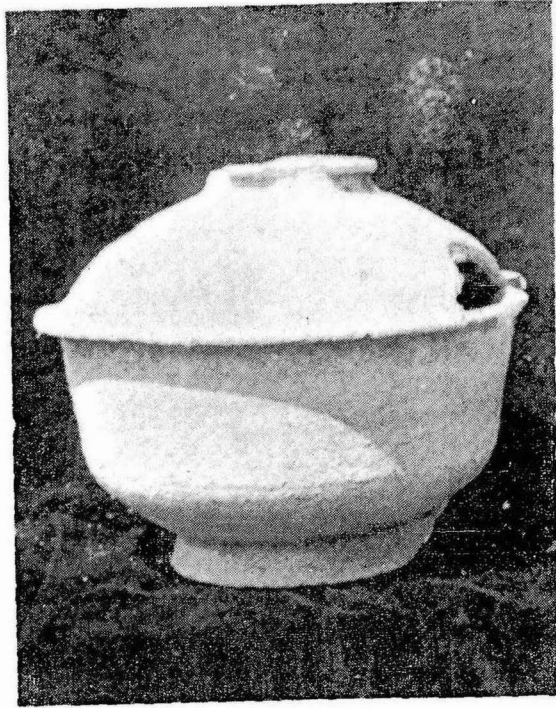


圖 29. 中井里 塋山 五號墳 出土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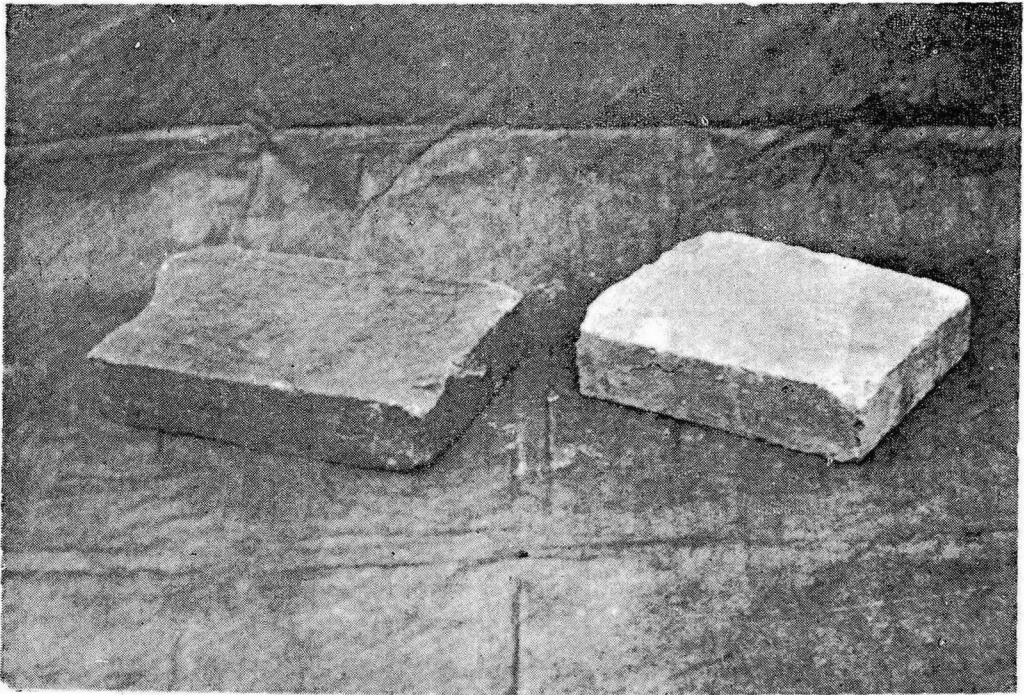


圖 30. 中井里 塋山頂 出土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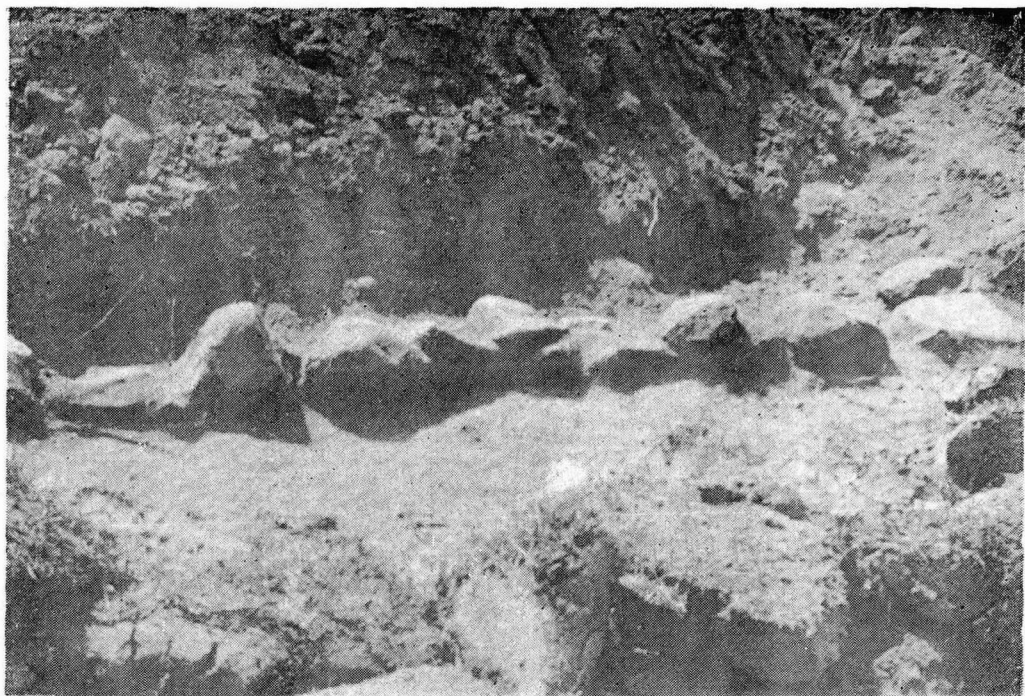


圖 31. 中井里 塋山頂 石列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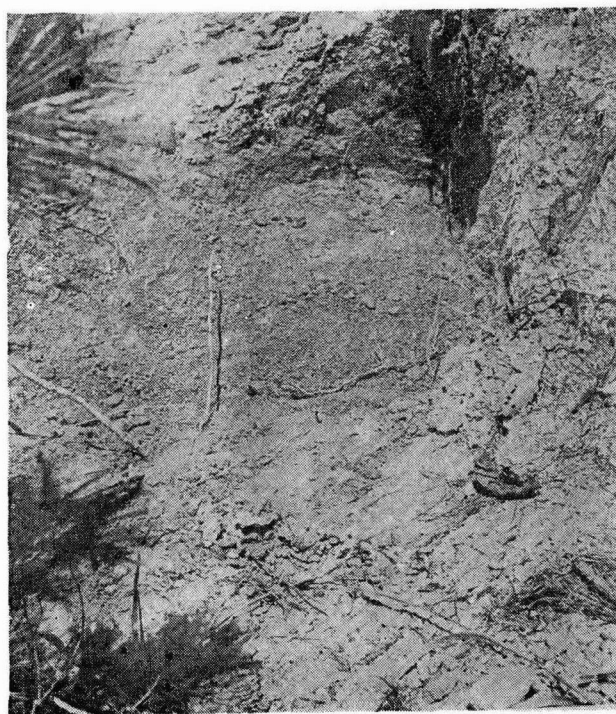


圖 32. 鹽倉里 回峰 火葬墳墓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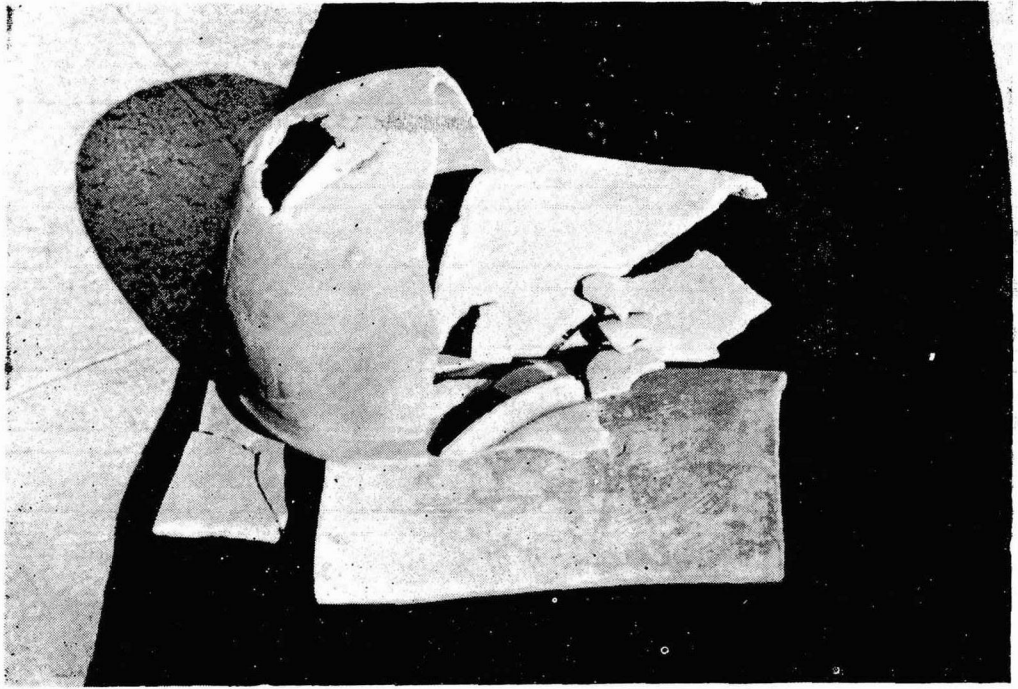


圖 33. 鹽倉里 叫峰 藏竹容器 出土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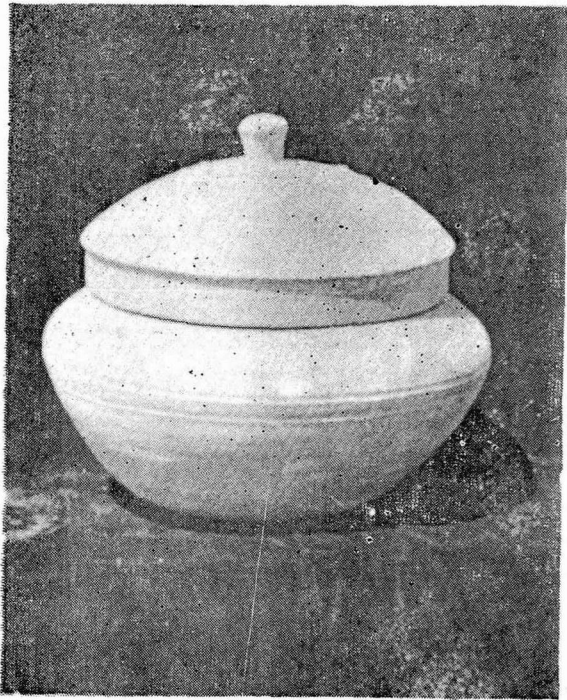


圖 34. 舒川 屯德里 出土 壺



圖 35. 舒川 文山面 發見 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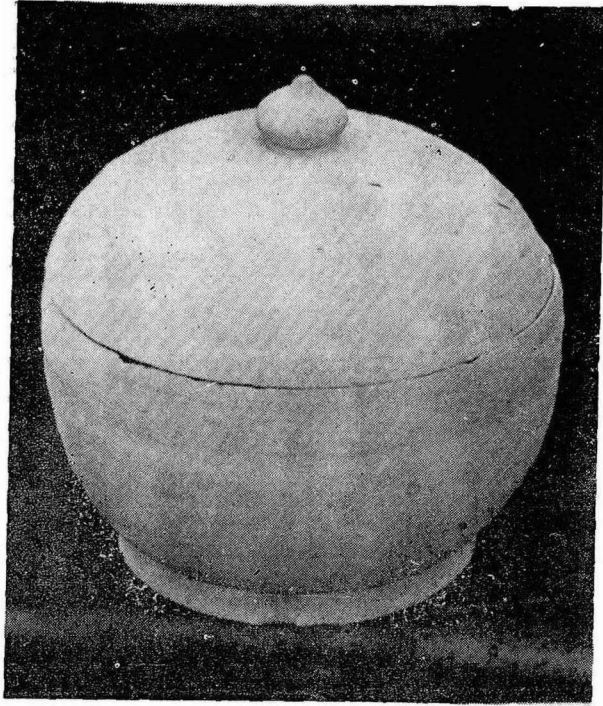


圖 36. 扶餘 草村面 新岩里 發見 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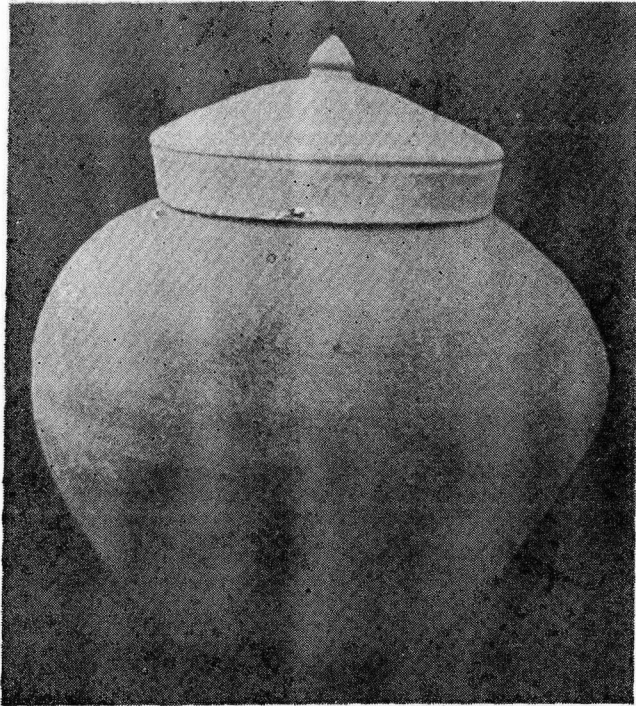


圖 37. 扶餘 軍守里 發見 壺